

“백제왕궁으로 천년별밤캠프 떠나요”

익산·공주·부여서 8일부터 백제문화유산주간 개최
체험학습·전시회 등 역사적 의미 담은 문화행사 구성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된다. 익산시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익산·공주·부여박물관 등 8개 기관과 협력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익산, 공주, 부여 등에서 백제문화유산주간을 개최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행사 특강·강좌 ▲체험학습·활동 ▲답사 프로그램 ▲사진·그림 전시회 ▲유물·유적 연계프로그램(백제문화유산 노턴) 등으로 지난해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프로그램과 신설 프로그램을 더해 구

성됐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백제문화유산 노턴’은 백제왕도의 중요유적과 출토유물을 연계한 참여기관의 공동 협력 사업으로 한여름 밤에 열리는 전통·퓨전음악회와 체험이 결합된 야간행사이다. 익산은 7월 12일 저녁 7시 30분부터 국립익산 박물관에서 열리며 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선착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7월 14일 큰★발생으로 잘 알려진 EBS한국사 최태성 강사를 초청해 ‘최태성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제역사 이야기’를 주제로 재미있는 역사 강연이 진행되며

강연 후에는 포토타임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유적답사(7.13)’와 ‘백제왕궁 천년별밤캠프(7.12~7.13)’,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진행되는 ‘낙관의 수막새 배지 만들기(7.13)’, ‘백제문화유산주간 사진 콘테스트’, ‘백제역사유적지구 일러스트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등 백제왕도를 보여주는 다채로운 답사·체험 프로그램을 행사기간 내내 진행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익산의 백제왕도 문화자원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유익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제문화유산주간은 백제왕도를 역사교육현장이자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행사로 지난해부터 참여자들의 큰 호응과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당북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이 오는 19일 제 2회 한·중 어린이 교류 예술제에 참가한다.

당북초 국악관현악단, 한·중 어린이 교류 예술제 참가

당북초등학교(교장 권영숙) 국악관현악단이 오는 19일 제 2회 한·중 어린이 교류 예술제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한·중 어린이 교류 예술제는 한국과 중국의 어린이들이 각기 전통문화 예술 공연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하기 위한 축제의 장으로, 이번 공연은 18일 해남에서 1차 공연 후 완주군 삼례면에 위치한 ‘삼례문화예술촌’에서 19일~20일까지 2일간 진행된다. 당북초등학교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예술꽃학교에 선정돼 국악교육에 힘써왔으며, 2018학년도부터는 ‘악(樂), 가(歌), 무(舞) 전통예술교육을 통한 예술과 친구 되기’를 주제로 자생적인 국악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국악관현악단 지도교사(신유미)는 “이번 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통문화예술의 멋과 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성과 재능을 발굴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북초는 예술꽃나눔축제를 운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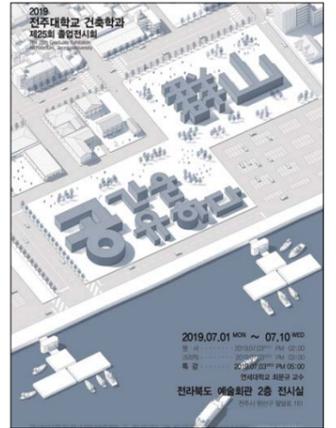
2012년부터 많은 공연과 대회에 참여했다. 이번 공연 외에도, 8월 31일 군산에서 열리는 ‘제29회 전국학생 전통예술경연대회’, 9월 7일 대구에서 열리는 ‘제5회 전국청소년 국악관현악제’, 9월 17일 한국소리문화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전북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에 참가해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및 건강증진 거점학교로서의 긍정적인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9월 24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지역연계 예술활성화 공연으로 군산시민과 함께하는 제8회 예술꽃연주회 ‘삼백이 잔치, 소리놀이’ 참가국악극이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건축의 결과는 항상 정직하다’

전주대, 오늘부터 전북도 예술회관에서 건축학과 졸업전시회

전주대학교 건축학과는 오늘부터 10일까지 전북도 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2019년 졸업작품전 ‘공간을 공유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작품전에서는 건축학과 5학년 33명의 학생과 그들과 함께해온 건축학과 교수들의 값진 결과물이 전시된다. 학생들은 군산을 ‘주제 도시’로 선정하고, 수십번의 방문과 현장·문헌 조사를 통해 군산의 도시적, 건축적, 사회적 문제를 발굴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성격과 건축 설계의 목적에 따라 △새로운 주거 복합체를 상상하다 △경제와 산업에 주목하다. △계층별 문제를 들여다보다. △문화와 역사를 생각하다. △삶의 질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다. 다섯 가지 테마로 나누어 전시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군산지역의 도심 공동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오픈 스페이스와 수직으로 조직된 주거 복합타워, 도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나운동 의류상가 재생방안, 신진예술가를 위한 계 북동 전시장 등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제시한 다양한 건축 설계를 관람할 수 있다. 임용민 교수는 “건축의 결과는 항상 정직하다”며, “33명의 건축학과 학생들이 5년 동안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결과물이 전시



시되는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그들의 값진 결과물을 둘러보고 새로운 앞날을 예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건축학과 졸업작품전 개막식은 오는 3일 오후 2시에 진행되며,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의심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펼치길 건축가’ 연세대 최문규 교수의 강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조부모 대상 성평등 교육 실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윤애)는 지난 28일 본 센터에서 손주 돌봄 어르신 대상 조부모 바른생활 양성평등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족의 조손 돌봄 비율이 2012년 50%에서 2018년 63.8%로 증가, 맞벌이 부부 10쌍 중 6쌍이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으며, 이는 신생아나 영아를 돌보는 데 조부모님이 가장 믿을 만하다는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영유아기는 보호자와의 상호작용과 양육 환경에 직접적인 미친다고 볼 수 있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조부모 바른생활 양성평등 교육을 신설해 추진하게 됐다. 강사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인재 아카데미 강의 경력과 가족친화기업의 일·가정 양립교육 전문가로 활동중인 인교육전략연구원 원장 정미란 대표가 함께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도내 조손 돌봄 가정의 조부모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평등한 조부모 상과 역할을 알아보고, 조손 양육 과정 속 편견 사례를 분석해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조부모가 스스로 성평등 의식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참여자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동과 말



들도 지혜롭게 해야겠다”며, “알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강의 후 소감을 밝혔다. 이윤애 센터장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자리잡기 쉬운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양성평등의 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조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육아에 참여하는 조부모가 갖춰야 할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에 센터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www.jwec.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